금수강산

12
2024년
루계 제424호 월간

 ISSN 1727—9062

차례

2024년 12월호

제424호
1989년 8월 창간

표지: 월드컵을 들어올린 녀자축구선수들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련맹 2024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세계적인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과시한 감독, 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의 영예를 떨친 기쁨과 긍지가 어려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희세의 령장을 모시여

오늘 공화국은 그 누구도 범접 못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주체조선의 국위와 국력이 높은 경지에서 빛나는 현실을 목격하며 우리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며 13년전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2011년 12월 30일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공화국무력의 혁명적본태와 성격을 고수하고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나갈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는것과 함께 조국이 군사강국으로서의 명예와 존엄, 위상을 과시할수 있게 하였다.

혁명무력건설위업의 성패, 국가의 강대함과 인민의 존엄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그 위력을 떨치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2012년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을 찾으신데 이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력력한 사단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부대가 나아갈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였다.

모든 군인들을 견결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풀어나가기 위한 군건설강령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끗끗이 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무력건설의 대강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인민군대를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가 되도록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부강조국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지기 위한데 총력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는 력사적인 대회합들과 여러 군종, 병종의 경기대회들에도 어려있고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몸소 보아주신 흙먼지 날리고 포연자욱한 훈련장들에도 비껴있다. 특히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신 그이의 령도는 인민군대가 불의의 돌발상황에도 즉시적으로, 전격적으로 대응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나게 한 자양분이였다.

지난 10여년간에 이룩된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의 획기적인 전환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천년만년 끄떡없을 안전담보력을 마련해주기 전에는 떠난 길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이며 그 길에서 꺾이지도 쓰러지지도 않을것이라는 비상한 의지를 안으시고 국방과학연구기지들과 위험천만한 시험장들을 수없이 찾고찾으신 그이이시다.

그 나날 그이께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준으로 삼으신것은 조국의 존엄이였고 인민의 리익과 행복이였다.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운것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강화였다.

이렇듯 그이의 헌신과 로고는 우리 공화국을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쥔 최강의 군사강국으로 급상승하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되게 하였다.

지난 시기 성대하게 진행된 열병식들에서 최신무장장비를 갖추고 보무당당히 전진해가는 인민군장병들의 강용한 기상과 강력한 전쟁억제력인 첨단무장장비들의 도도한 흐름은 이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그이의 령도밑에 무적의 대오로 강화된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뿐 아니라 부강조국건설에서도 자기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인민군장병들은 군인정신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전구마다에서 위훈을 창조하였다. 최근시기에도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실현을 위한 건설의 전렬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불패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본사기자 강경수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참관자들

강군의 위용을 떨치는 조선인민군

위민헌신의 나날에

무거운 걸음과 가벼운 걸음

2015년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땅 한끝인 라선시로 향하시였다.

뜻하지 않은 큰물피해를 입었던 라선시에서 피해복구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머나먼 길을 떠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불과 20일전 수수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점심식사마저 잊으신채 흙먼지가 뽀얗게 날리는 길아닌 험한 길을 걸으시며 라선시를 찾으시였던 그이이시였다.

불행이 휩쓸었던 그 땅에 인민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자신께서 직접 보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이께서는 하늘길, 배길, 령길을 또다시 재촉하신것이였다.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그이의 앞에는 천지개벽된 라선시 선봉지구(당시) 백학동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양지바른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게 들어앉은 새 마을을 환하신 미소속에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전번에 올 때에는 큰물피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새집을 지어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이 무거웠댔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매우 가볍다고 하시였다.

무거운 걸음과 가벼운 걸음, 이것은 오직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이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말씀이였다.

없어진 관람실의 공간

몇해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삼지연군(당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때의 일이다.

군문화회관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회관의 관리실태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군예술소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영화상영은 어떻게 하는가도 물어주시고 회관천정의 조명상태도 일일이 헤아려보시며 회관의 관람실로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가운데통로 중간쯤에 이르시여 수수한 관람석에 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관람실을 한동안 둘러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문득 가운데통로를 왜 이렇게 넓게 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 관람실의 그 공간은 없어지고 거기에 관람석의자들이 새로 더 놓이게 되였다.

한밤중에 걸어오신 전화

몇해전 뜻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상방역상황의 긴장한 나날이 흘러가던 개성시에 횡포한 자연의 광란까지 겹쳐들었던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개성시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큰물피해정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나서 이번에 개성시도 큰물피해를 적지 않게 입었는데 지금 개성시가 완전봉쇄되여있는 조건에서 피해복구를 자체로 할수 있겠는지 걱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불과 며칠전에도 거듭 전화를 걸어오시여 지금 완전봉쇄되여있을 개성시인민들이 생각나서 또 전화를 하였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도 세계적인 대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개성시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고 하시던 그이이시였다.

오늘 또 완전봉쇄에 큰물피해까지 겹쳐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성시인민들생각으로 잠 못드신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자신께서는 개성시인민들이 이 어려운 시련을 꼭 이겨내리라고 믿는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이 겪는 불편을 자신의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잠 못드시고 마음쓰시는 그이이시다.

* *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2012년 2월 16일 재미동포전국련합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올린 선물이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심이 담겨져있다.

금속조각 《백두산의 호랑이》의 높이는 82㎝이고 너비는 20.5㎝, 길이는 65㎝이다.

라자구등판에서

(전호에서 계속)

몇십명에 지나지 않는 유격대력량만으로는 도저히 라자구를 사수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구국군과 함께 동녕현쪽으로 후퇴하였다. 동녕현까지 따라가서라도 기어이 구국군을 돌려세우자는것이였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병력과 격전을 벌리면서 후퇴하다나니 우리는 도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 우리가 적의 대군과 싸우면서 동녕현방향으로 갈 때에는 추운 동지달이여서 반일병사들가운데도 얼어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구국군을 따라가면서 꾸준히 왕덕림을 설복하였다. 그때 그가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공동전선을 하여 동북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잘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왕덕림은 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내 쏘련을 거쳐 중국관내로 가버리였다.

우리는 왕덕림과의 교섭을 단념하고 로정을 바꾸어 최종목적지인 왕청지구로 향하였다. 라자구에서 수백리를 걸어 쏘만국경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서는 내 마음은 비길데없이 침울하고 암담하였다. 수만명에 달하는 구국군도 감히 일본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뺑소니를 치는데 18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부대는 이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나야 하는가. 어떤 묘술로 이 엄혹한 고비를 넘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8명이면 일본사람들이 즐겨쓰던 표현에도 있는것처럼 《창해일속》과 같이 미미한 존재라고 할수 있었다.

부대가 40명으로부터 18명으로 줄어든것은 여러가지 사정에서였다. 싸움에서 전사도 하고 병을 만나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해서 내보낸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투쟁을 못하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독립군출신의 나이많은 대원들과 일부 농촌청년들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하였다.

마지막까지 대오에 남은것은 길림시절부터 공청조직에 망라되여 투쟁하던 동무들이였다. 그 18명을 데리고 사선을 헤치면서 왕청으로 나올때 내가 새롭게 깨달은것은 사람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여야 어떤 극단적인 정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가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다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왕청으로 가는 로상에서 오의성의 련락병을 만나 그와 함께 행동하였다. 그 련락병의 이름은 맹소명이라고 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처음에 신분을 알아보려고 그를 단속하였다. 일본간첩들이 사방에 우글우글할 때였으므로 우리는 신분을 확인할수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계하였다. 맹소명에게는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와 반일부대와의 협약으로 발급된 반일회원증이 있었다. 이 반일회원증을 유격대원들에게도 주고 반일부대병사들에게도 주었다. 이 증서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량측에서 서로 보호하고 도와주게 되여있었다. 맹소명은 반일회원증뿐 아니라 오의성이 왕덕림에게 보내는 응원요청서까지 가지고있었다. 우리는 그가 오의성의 련락병이라는것을 완전히 신임할수 있었다.

맹소명이 천교령으로 가게 된데는 그럴만한 곡절이 있었다.

《사실은 이 편지를 전하려고 동녕까지 갔댔는데 왕덕림이 달아나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오의성한테 오니 그도 로모저하에 한개 대대만 떨구고 홍석라자쪽으로 철수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로모저하에 떨궈두었다는 그 한개 대대마저 소삼차구(천교령)쪽으로 갔다는겁니다. 그래서 그 대대를 찾아가는중입니다. 나중엔 죽더라도 항일을 해야겠으니까요.》

맹소명의 항일의식은 아주 견결하였다. 그는 동북3성에 시국을 평정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대장님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어떤 작가는 사람은 패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태여났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눈속을 헤쳐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맹소명과 함께 소삼차구방향으로 갔다는 그 대대장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그 한개 대대에 련합전선의 명줄을 걸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대대만은 꼭 설복하여 투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맹소명은 왕청까지 가서 우리와 함께 요영구방위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한 잊을수 없는 동행자였다. 1974년에 맹소명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여 우리가 라자구등판에서 만나게 된 때를 감회깊이 상기시키였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지난날 우리와 함께 고난속에서 우의를 나누던 오의성의 련락병이 살아있다는것과 그가 돈화합작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넘긴 고비는 로흑산에 갔을 때라고 생각한다. 로흑산까지는 덜렁덜렁하였지만 구국군이 동행하였으므로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별로 외로운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이 쏘련으로 다 도망가버린 후로는 그 광막한 등판에 우리 18명밖에 남은것이 없었다. 왕덕림이 월경하면서 남겨두고간 일부를 데리고 주보중까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다나니 우리는 완전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였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돌아치면서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를 뿌리고 땅에서는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무리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였다.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조차 볼수 없는 혹독한 추위와 허리를 치는 장설때문에 대오는 좀처럼 앞으로 전진할수가 없었다. 림시변통으로 그날그날 얻어먹으며 힘들게 저축해둔 식량도 바닥이 났다. 5월에 소사하에서 입고 떠난 군복마저 다 찢기고 터져서 살이 드러났다.

이런 때에 우리는 라자구등판에서 마가성을 가진 좋은 로인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어려운 고비를 모면하였다. 우리가 마로인을 만난것은 음력 섣달그믐날이였다. 사상으로 보면 무정견, 무소속인데 국민당의 정치에 대해서는 덜돼먹었다고 침을 뱉는 령감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를 신봉하는것도 아니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세주의가 강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남들에게 덕을 베풀지 않고서는 괴로와서 견디지 못하는 착하고 인정깊은 호인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사상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기 위한 활동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현재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은 국제적인 상설기관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4개의 대륙별연구조직, 수많은 전국위원회와 연구소조들에 망라된 각계각층의 광범한 주체사상신봉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다.

처음에 개별적인 선각자들에 의하여 진행되던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은 1960년대부터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 의하여 활발히 벌어졌다. 1969년 4월 말리의 고등사범학교 교원, 학생들에 의하여 제일먼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으며 그해말까지 20여개 나라에 연구소조가 조직되였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신봉자들의 열기가 높아가는 속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연구보급활동을 대륙적, 전세계적범위에서 진행할수 있는 조직화된 기구를 내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976년 9월 마다가스까르의 수도 안따나나리부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세계적범위에서 보급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기관을 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내올데 대한 평양선언이 채택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였다.

1978년 4월 일본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가 열리였다. 대회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들과 일본에 있는 13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들, 주체사상신봉자들, 저명한 학자, 문화인, 사회활동가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성스러운 기치》라는 제목의 창립선언이 채택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을 전후하여 지역적인 주체사상연구소조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련이어 조직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출현하였다.

몇해전 도이칠란드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실천에 구현하는것은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드레즈덴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몇해동안 벨라루씨 위쩹스크주체교육학협회, 도이칠란드 베를린주체사상연구소조, 민주꽁고 자주를 위한 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이 결성되였다.

날이 갈수록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조직들과 신봉자대렬이 늘어나는것과 동시에 그 활동도 더욱 적극화되였다.

1971년 12월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0여년간 90여차에 걸쳐 국제적 및 지역적규모의 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비롯한 의의있는 계기들에 토론회, 강연회, 강습 등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벌리였다.

올해 4월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2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공동주최로 자주와 정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 《주체사상은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지침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와 평등의 념원을 실현해주는 주체사상》 등의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들에서 토론자들은 주체사상에 대한 신봉열기는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위대한 시대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반제자주력량이 단결된 힘으로 나아갈 때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시대사상이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진보적인류는 자주와 정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전진할것이며 착취와 억압, 예속이 없는 새 세계는 반드시 건설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전세계적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병사시절을 추억할 때면

내가 제대된지도 이제는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두고 감나무중대 손풍금수라고 부르고 있다.

감나무중대 손풍금수.

조용히 뇌일수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온다.

그러면 마음은 마냥 잊지 못할 그날로 달려가군 한다.

훈련으로 보람찬 병사시절을 보내던 1995년 2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중대를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 중대에 오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너무 기뻐 만세를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언제나 그이를 마음속에 그리며 군사복무의 날과 달을 보내던 우리들이였다.

이날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아주시고 침실, 식당을 비롯하여 중대의 여러곳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준비한 소박한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였다.

집을 멀리 떠나 바람세찬 곳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보고싶다시며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하게 된 꿈만 같은 영광에 가슴들먹이며 우리들은 군사복무의 보람찬 생활을 무대에 올렸다.

나도 손풍금연주로 녀성해안포병들의 명랑하고 락천적인 생활을 펼쳐보이였다.

그이께서는 녀성해안포병들이 모두 락천적이고 재간이 있으며 하모니카합주도 잘한다고, 화술작품들도 괜찮다고, 웬만한 배우들도 중대에 왔다가 울고가겠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녀성해안포병들이 울면서 노래를 부르니 자신께서도 눈굽이 뜨거워진다고 하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모시고 중대예술소조공연을 하게 되였다. 그날 우리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마치 선녀들같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순간 우리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지금까지 수많은 군관, 장령들이 우리를 녀장부들로 칭찬한적은 있었지만 선녀같다고 말한적은 없었다.

녀성군인들을 자신의 친딸처럼 정깊게 여기시는 그이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며 우리들은 공연을 시작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합창과 설화, 독창, 중창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목이 끝날 때마다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중대의 예술소조공연수준이 아주 높다고 치하해주신 그이께서는 우리들과 한생에 길이 남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우리 중대를 찾아주시였으며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켜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우리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하기에 언제나 나의 전사들이 있는 곳에는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 나라의 령이란 령은 다 넘으시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지금 나의 집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모셔져있다.

세월은 흘러 사진속의 감나무중대의 많은 전우들이 제대되였고 이제는 나도 인민정권기관에서 사업하고있지만 아직도 그날의 추억이 어제일인듯 떠오르군 한다.

나는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을 제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겠다.

평양시 중구역인민위원회
부장 정혜영

또다시 월드컵을 들어올린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

도미니까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24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고 올해 두번째 월드컵을 들어올리였다.

세계의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나라 팀과 에스빠냐팀사이의 결승경기가 11월 3일(현지시간)에 진행되였다.

경기장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적극적인 공빼앗기로 상대팀을 압박하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와 먼저 실점을 당하였지만 우리 선수들은 경기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호상간협동을 강화하면서 완강한 공격을 들이댔다.

경기시간 66분경 우리 팀에서 19번선수가 상대팀방어수들의 뒤공간으로 련락해준 공을 7번 전일청선수가 문지기를 빼돌리고 정확한 차넣기로 득점하였다.

더이상 득점이 나지 않아 두 팀은 11m승부차기를 진행하였다.

관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11m승부차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에스빠냐선수들을 4:3으로 이겼다.

하여 우리 나라 팀은 에스빠냐팀을 5:4(전후반전 1:1, 11m승부차기 4:3)로 이기고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존엄높은 우리의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경기장을 달리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감동적인 모습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이번 대회에서 높은 기술을 발휘하고 결정적인 득점으로 팀의 승리에 기여한 7번 전일청선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금뽈상을 수여받은 전일청선수

시상식에서는 국제축구련맹 2024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전일청선수에게는 최우수선수상인 금뽈상이 수여되였다.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련맹 2024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거둔 경기성과는 세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산간벽촌이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송금리는 평양시 강동군 읍에서도 멀리 떨어진 산골에 위치하고있다.

이곳에 지난해 현대적인 송금축산농장이 일떠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이곳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반만년전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을 일떠세운 조선민족의 시조릉인 단군릉의 웅장한 자태가 보이는 문흥리를 지나 취재차가 송금축산농장을 가까이할수록 절로 감탄이 나옴을 금할수 없었다. 마치 옛말에 나오는 무릉도원인양 아름다운 농촌마을풍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기때문이다.

산기슭을 따라 층층이 내려앉은 다락식살림집들과 단층, 소층으로 구색을 맞추어 일떠선 각이한 형태의 살림집들, 동화세계의 곰동산, 토끼동산을 방불케 하는 탁아소와 유치원, 도시부럽지 않게 꾸려진 학교와 편의봉사시설 등은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보다는 드넓은 자연풀판과 사료작물들이 자라는 등판, 그우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짐승들의 모습은 목가적인 풍취를 더해주었고 산야마다에 특색있게 일떠선 젖소며 염소우리들과 젖가공시설들이 멋이 있었다.

이곳 원유경경리의 말에 의하면 농장이 새로 조업한지는 1년밖에 안되지만 농장에서는 과학축산을 적극 내밀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있다고 하였다.

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중앙의 과학연구단위들이 망으로 보내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그쯘하게 구축되여있었다. 특히 이동통신기재를 리용하는 사양관리봉사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져있어 방목공들이 방목지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적방조를 신속히 받고있었다.

농장에서는 풀판의 지력개선을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것을 비롯하여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더 많이 퍼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었다.

축산에서 중요한것은 집짐승의 먹이보장문제이다. 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은 곳은 배

합먹이를 생산하는 곳이였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있는 이곳에서는 자체로 배합먹이와 영양먹이첨가제를 생산하고있었는데 이것을 리용하면서부터 젖소와 염소의 증체률이 높아지고 젖생산량도 대폭 늘어나고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배합먹이생산으로 집짐승의 옥내사육을 실현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이였다.

이어 우리는 젖소분장으로 향하였다. 이곳의 조종실에 들어서니 젖소먹이보장과 온도, 습도 관리 등의 모든 작업이 자동적으로 조종되고있었다.

젖소우리마다에는 우량품종의 젖소들이 많았는데 관리공들이 젖짜기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서 나오는 젖들은 젖가공장으로 운반되여 젖가루와 신젖, 빠다, 치즈 등의 젖제품으로 가공된다.

젖가공작업반 반장인 김광일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젖가루는 그 질과 맛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젖가공장을 나선 우리는 여러 염소분장에도 들려보았다.

염소분장들에서는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염소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고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염소사양공 송철민은 강동군에서도 벽촌으로 이름없던 송금리에 도시의 문화주택 못지 않은 훌륭한 살림집을 건설해주고 배정해주었으며 본보기축산기지로 전변시켜준 나라의 은정에 더 높은 축산물생산성과로 보답해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만이 아닌 축산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다 더 발전해갈 송금축산농장의 래일을 확신하며 이 고장에 대한 취재를 마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호평받는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선교동양식료품가공사업소는 규모도 작고 종업원도 많지 않다. 하지만 사업소에서는 한개 식료공장과 맞먹을 40종에 백수십가지의 식료품을 생산하여 평양시는 물론 전국의 봉사망들에 보내주고있다.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간장과 식초는 물론 김치양념, 고추장, 속성국수, 고추양념기름 등은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식료품인데다가 맛좋고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가정주부들이 무척 좋아하고있다.

성과의 요인은 박은하소장을 비롯한 사업소종업원들이 설비의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새 제품개발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한데 있다.

가정주부들이 어떤 제품을 요구하는가,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어떠한가는 사업소종업원들이 늘 관심하고 있는 문제이다. 하여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알아보았고 그에 따르는 의의있는 방안들을 제기하고 풀어나갔다.

이 나날에 그들은 간장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는 새로운 산분해탕크를 제작설치하여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였으며 생물반응기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발효식초를 생산할수 있는 길도 열어놓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종전의 3면접합포장기를 4면접합포장기로 갱신하여 제품포장의 질을 개선하였다.

성과는 새 제품개발에서도 일어났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최근년간에만도 사업소에서는 국내원료에 의거한 여러가지 질좋은 기초식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러한 속에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김치양념과 고추양념기름을 공업적방법으로 다량생산하여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였다.

몇해전 이들이 내놓은 《김치양념과 그 제조방법》, 《고추양념기름과 그 제조방법》 등은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에 출품되여 발명권과 메달을 받았으며 많은 제품들이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을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참관자들 특히는 가정주부들의 호평을 받았다.

강원도 원산시에 사는 리영희녀성은 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우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김치양념제품은 가정주부들이 편리하게 김치를 담그게 하고 또 김치가 시지 않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오늘도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인민의 요구와 평가를 중시하며 그것을 어김없이 실천하기 위해 보다 분발해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평

동양

상식

동지날의 특식 동지죽

예로부터 동지날을 한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에서 작은 설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명절로 쇠여왔다. 우리 조상들이 동지를 한해의 시작날로 본것은 동지다음날부터 점차 해가 길어지기때문이다.

동지죽은 동지날에 쑤어먹는 죽이라고 하여 붙인 이름인데 동지날에 찹쌀오그랑이(새알심)들을 넣어 만든 팥죽을 쑤어먹는것이 현재까지 전해져내려오는 전통적인 풍습이다.

팥죽이 동지날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된데는 그해에 지어놓은 햇곡식가운데서 건강에 좋은 붉은팥으로 죽을 쑤어먹음으로써 아무 탈없이 그해를 무사히 지내기 위한데서였다고 한다.

우리 인민들은 동지날에 동지죽을 쑤어 이웃간에 서로 나누어먹으면서 화목을 두터이 하였다.

동지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는 세그릇일 때 백미 150g, 팥 200g, 찹쌀가루 또는 찰수수가루 200g, 소금 10g을 준비한다.

먼저 백미는 깨끗이 씻어 일어 불군다.

다음 찹쌀가루 또는 찰수수가루를 익반죽하여 직경이 1.5cm 되게 오그랑이를 빚어놓는다.

팥을 푹 퍼지게 삶은 다음 팥을 삶은 웃물만 가마에 안치고 백미를 두고 끓인다.

백미가 푹 퍼지면 오그랑이를 두고 삶는다. 오그랑이가 익으면 팥앙금을 두고 약한 불에서 한소끔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그릇에 담는다.

*　　*　　*

의약품생산에서 주선으로 내세운

국산화와 품질개선

평양시 선교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평양제약공장은 나라의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6년 6월 나라의 첫 제약공업기지로 창설된 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나라의 제약공업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의하여 공장은 2023년 11월 제약공업의 중심으로 전변되였다.

GMP화가 실현된 공장은 모든 생산공정과 환경이 표준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졌다.

고려약직장, 신약직장, 포장재직장 등으로 이루어진 공장에는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생산공정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으며 공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하여 수십동의 건물들이 규모있게 배치되여있다.

공장에서는 의약품의 국산화와 품질개선을 경영활동의 주선으로 내세우고 연구사업과 생산을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히 공장에서는 고려약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를 받은 글리베르당뇨병교갑약, 아스코세틴교갑약을 비롯하여 안궁우황환, 류미환 등 고려약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그 효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 시기 국내원료로 파라세타몰, 메벤다졸미세가루, 아스피린, 파라푸에라민감기교갑약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신약을 개발생산한 공장에서는 약효가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또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계속 향상시키는것과 함께 상비약품과 대중약품의 품종과 생산량을 늘이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공장의 상표도안실에서는 전국의 제약공장들에서 요구되는 의약품상표도안도 창작하여 보장해주고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백수십종의 의약품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으며 수도와 지방의 병원들과 약국들에 공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친절한 봉사로

천연로화방지활성물질들과 영양물질들을 함유하고있는 로화방지화장품은 피부의 수분보충, 영양강화, 활성산소제거 등의 작용으로 피부의 주름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작용에 의한 로화방지효과가 높은 기능성화장품입니다.

미의 세계를 개척해나가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조선금강산합작회사 금강산화장품전시장에서 최근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전시장책임자 리설향은 《우리는 전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과학적인 피부측정과 치료미안, 레이자치료미안봉사와 화장품선택, 화장방법에 대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있다.》라고 하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피부측정실에서는 피부의 수분함량, pH값을 비롯한 피부측정을 진행하고 손님들의 피부상태와 거기에 적합한 화장품선택과 치료미안방안을 선정해주고있다.

한편 화장방법보급실에서는 녀성들에게 피부형과 피부색에 맞는 리상적인 화장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있다.

치료미안실에서는 영양미안봉사와 함께 피부세척, 피부마싸지, 피부영양 및 치료의 배합으로 화장품부작용, 뾰두라지, 여드름, 언독, 화장품중독을 치료하여 탄력있고 청신한 피부로 가꾸어주고있다.

레이자치료미안실에서는 표피만이 아니라 진피까지 깊이 침투하는 레이자빛으로 기미와 모반, 주근깨, 검버섯, 로인반점을 비롯한 여러가지 혈관성피부병 및 색소침착을 치료, 제거하고있다.

전시장에서는 로화방지화장품, 콜라겐화장품, 비타민화장품, 줄기세포화장품, 금계렬화장품, 알로에화장품, 검버섯제거화장품 등 피부특성과 녀성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품종의 기능성화장품들을 판매하고있다.

지금 금강산화장품전시장으로는 아름다움과 젊음을 바라는 녀성들이 수없이 찾아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대동강가구공장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인민봉사지도국 대동강가구공장에서 사용에 편리한 《청춘》상표를 단 다용도가구들을 생산하고있다.

접기와 펴기, 회전과 끼우는 방법으로 다용도화를 실현한 침대, 식탁, 책상 등의 가구들은 리용이 편리하고 생활공간의 필요에 따라 넓히거나 축소할수도 있어 대단히 실용적이라는것이 사용자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홍명철지배인은 《나라의 도처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수준이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공장에서는 미학성과 편리성이 보장된 다용도가구들을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키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최신가구발전추세와 국내의 가구제작실태를 분석한데 토대하여 새형의 다용도가구도안설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도안설계를 담당한 기술준비실의 연구사들은 다매체프로그람과 설계도구들을 활용하여 가구인체공학적요구에 맞게 콤퓨터모의를 진행하고 집체적토의에 붙여 도안을 세련시켜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가구생산에 필요한 부속들과 기구들을 국내의 생산품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기술적지표가 높아지는데 맞게 전반적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결과 가공공정의 CNC화가 실현되여 가공의 정밀도를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종업원들속에서 곡면가공공법을 비롯한 우월한 가공공법들이 창안도입되여 다용도가구생산에서 진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다른 가구생산단위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벌려 제품개발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있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24》를 계기로 여러종의 다용도가구를 개발한 공장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새로운 가구제품개발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질제고를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더 질좋게, 더 많이

- 남포천지화학공장 -

기계공업과 륙해운수를 비롯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공장, 기업소들중에는 남포천지화학공장도 있다.

나라의 윤활유공업에서 맏아들이라 할수 있는 이 공장은 근 30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우리와 만난 이 공장기사장인 리광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질좋게, 더 많이 생산하는것, 이것은 우리 공장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장에서는 기계공업과 륙해운수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맞게 윤활유공업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윤활제에 대한 확대재생산과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히 새 제품개발과 윤활제들의 규격을 갱신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올해 상반년기간에만도 SJCH40, DOT3 등 새로운 윤활제들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윤활제품들을 개발 및 갱신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곡축함모의시험기를 비롯한 각종 시험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단히 완비해나감으로써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그 어떤 윤활제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가고있다.

작은 부지면적에 몇대 안되는 설비들을 갖추고 첫걸음을 뗀 이 공장은 오늘날 넓은 부지면적에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으로 전변되였다.

그리고 조업당시 5종에 20여가지의 제품만을 생산하던 이 공장에서 오늘날 수십종에 수백가지의 윤활제를 생산하는 종합적인 생산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적지 않은 제품들이 국제석유수출국가기구(OPEC)가 주최한 입찰에 여러 차례 당선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화 화가가정

> 나는 손녀, 손자가 다 조선화를 전공하였으면 한다. 물론 다른 미술종류를 선택할수도 있겠지만 조선사람이라면 마땅히 민족회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집의 가풍으로 되였으면 한다.
>
> 지달승

이것은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로 일하고있는 지순희의 추억속에 소중히 간직된 아버지 지달승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국내의 미술계에서 공훈예술가 지순희라고 하면 풍경화를 녀성적인 필치로 섬세하게 그리는 화가로 공인되여있다.

46년간의 화가생활과정에 굳어진 습관때문인지 늘 화판에 마주앉아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지순희화가이다.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여유있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화판에 마주앉군 한다.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그린 지순희는 특히 묘향산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조선화 《묘향산 상원동》, 《묘향산 하비로암의 여름》, 《산천의 아침》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명산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그림을 보면 그곳에 서있는듯한감을 준다.

《내 나라 어디 가나 아름답지만 묘향산은 더 내 마음을 틀어잡습니다. 묘향산의 계곡들과 폭포들, 바위들, 나무들을 작품에 담았지만 아직 내가 그리지 못한 곳이 있는것만 같습니다.》

하며 그는 해마다 현지습작을 떠나군 한다.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작품창작을 할 때면 진지하고 탐구적인 립장에 서는 그이기에 수많은 풍경화, 인물화작품들을 국보적인 작품으로 내놓았으며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람회, 전시회들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의 필치는 대담하고 색채형상이 깊으며 정서적인것이 특징이라고 평하였다.

지순희가 그린 그림들의 일부

어느한 창작기관에서 조선화창작가로 일하고있는 그의 딸 김향숙도 몰골, 세화를 비롯한 여러 기법들로 화폭마다에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담아가고있다.

언제인가 지순희는 전시회에 전시된 딸의 그림을 본 일이 있었다.

늘 대견하게만 생각했던 딸이 출품한것은 어머니와 같은 묘향산에 대한 그림이였는데 개성이 엿보이지 않았다.

그날 지순희는 딸과 함께 모란봉에 올랐다.

《향숙아, 모란봉을 봐라. 새들의 우짖음소리, 나무들의 설레임소리. 이런 자연의 음향이 네 작품에 없다. 넌 작품을 곱게만 그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린 묘향산그림과 네가 그린 그림이 서로 달라야 한다. 그러자면 자기식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 조선화를 전공해서 조선화화가가정이 아니다.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조선화화가가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무게있는 어머니의 말을 향숙은 가슴에 새겼다.

아들 김일경

딸 김향숙

향숙은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향숙은 몇번이나 현지습작을 하면서 전통적인 기법들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자기식으로 세련시켰다.

하여 그는 조선화 《묘향산 산주폭포》를 전시회에 출품시켰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순희의 아들 김일경도 조선화화가가정의 대를 이어가고있다.

지순희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자주 조선미술박물관을 찾군 하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감상하는 그림이 있다.

《저 그림을 보아라. 할아버지가 창작한 조선화 <지질측량대>이다. 그림공부를 하고싶어 고학을 하였던 할아버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돈 한푼 내지 않고 미술을 배웠다. 할아버지는 늘 말했다. <아름다운 내 나라를 마음껏 화폭에 담아 후세에 길이 전해가거라.> 》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공중을 나는 부부

지난 7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이돌-2024》세계교예예술축전에서 우리 나라의 체력교예 《날으자 더 높이》에 이돌금상이 수여되였다.

체력교예 《날으자 더 높이》는 지난 시기와는 달리 변화무쌍한 여러가지 색조명과 특색있는 교예음악속에 공중4회전을 비롯한 난도높은 기교동작들이 전일체를 이룬것으로 하여 심사성원들과 관람자들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이 공연종목에 출연한 교예배우들속에는 리충억, 장하향부부가 있다. 남편인 리충억은 장거리비행을, 안해인 장하향은 뒤로세바퀴돌아잡기를 하여 관중의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올해 31살인 리충억과 28살인 장하향은 어릴적에 공중교예배우가 될 희망을 안고 평양교예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예배우가 된 그들은 높은 교예술을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천성적으로 말이 없고 조용한 그들이였지만 일단 훈련이 시작되면 무서운 정열가들이였다. 그날 과제는 무조건 수행하고야 훈련장을 나서군 하는 그들을 보며 동료들은 정을 담아 《꼭같은 이악쟁이들》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런 훈련과정은 청춘남녀를 가깝게 하여주었으며 남모르게 오고가는 서로의 사랑과 정은 그들이 공중교예배우로서의 육체적준비와 고급한 기술을 보다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주었다.

그 나날 이들은 부상으로 몸져누워있은적도 있었지만 언제한번 동요하지 않고 몸이 회복되면 더 극성스럽게 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그들은 짧은 기간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다. 장하향은 당시 인기있는 체력교예였던 《공중전회비행》종목에 망라되여 몸펴고 2회전돌아잡기동작을 손색없이 수행하게 되였다. 이 종목은 에스빠냐에서 진행된 제4차 휘궤라스국제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인 금코끼리상을 수여받았다.

한편 리충억도 체력교예 《출전을 앞두고》에서 뒤로세바퀴동작을 수행하였으며 이 종목은 중국에서 진행된 제17차 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인 금사자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후에도 여러 나라들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으로 우리 나라의 교예발전상을 과시하였다.

그들이 《이돌-2024》세계교예예술축전을 앞두었을 때에는 결혼한지 1년 남짓한 때였다.

당시 창작단의 일군들은 체력교예 《날으자 더 높이》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새 작품에서는 지난 시기의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여러가지 색조명을 리용해야 했고 음악의 박자도 새롭게 하여야 했으며 완성해야 할 기교동작들의 난도와 형상수준도 대단히 높았다. 더우기 훈련기간이 15일정도밖에 안되였는데 녀성으로 유일하게 주역을 맡아해야 할 장하향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때 장하향과 리충억이 배로 훈련시간을 늘일것을 요구하였을뿐 아니라 훈련의 질적수준을 높일수 있는 방법들도 내놓아 창작집단을 놀래웠다.

일반적으로 교예배우들이 한가지 기술동작을 완성하자면 수천번의 반복동작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받게 되는 육체적부담은 매우 크다. 가중되는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면서 훈련시간을 배로 늘인다는것은 일반생각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그들부부는 그러한 기성관념을 깨버리였으며 자기들이 내놓은 훈련방법들을 구현해나갔다.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머리속에 계획을 세우고 동작수행을 하였지만 헐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 실수하여 여러번 공중에서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락심하지 않고 반복훈련을 계속하였다.

그들부부의 이러한 훈련열의는 동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창작집단이 짧은 기간에 체력교예작품을 훌륭히 완성할수 있게 하였다.

하기에 세계교예예술축전무대에서 자기들이 창조한 체력교예작품이 최고상을 수여받았을 때 창작집단은 부부교예배우의 손부터 먼저 뜨겁게 잡아주었다. 그것은 누구보다 공중교예를 사랑하며 여기에 자기들의 진정을 다 바쳐가는 그들부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기도 하였다.

오늘도 리충억, 장하향부부는 공중을 날아예며 정을 두터이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철

살구《박사》

아버지 윤치응과 딸 윤혜영

언제인가 조선의학협회 평양시위원회 서기장 최성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비타민B_{17}주사약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이 주사약은 의학계에서 불치의 병으로 명명된 암을 명중하는 약이였다.

우리는 약국들과 병원들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중 만경대구역에 사는 윤정희녀성은 《5년전 MRI검사에서 유선암으로 진단받고 2달동안 비타민B_{17}주사약으로 치료하였는데 놀랍게도 다음번 검사에서 암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들도 믿기 어려워하였다. 비타민B_{17}주사약은 절망에 빠져있던 나에게 생의 활력과 희망을 안겨준 정말 좋은 명약이다.》라고 하였다.

대동강구역에 사는 강철민은 《나는 2022년에 위암3기로서 위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몸이 몹시 허약해지고 간경변도 심하여 몇달 살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비타민B_{17}주사약을 쓰면서 생의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명약으로 인정되고있는 이 약의 개발자들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호기심을 안고 비타민B_{17}주사약개발자들을 만났다.

알고보니 이 약개발에는 부녀연구사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1980년대초엽 어느한 연구단위에 있던 윤치응은 살구씨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있었다. 그 과정에 그는 새로운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것은 살구씨에 들어있는 비타민B_{17}이 다른 비타민들과는 달리 산과 알카리, 열에도 잘 견디였던것이다.

비타민B_{17}의 성질을 리용하여 살구씨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을 제거한다면 콩보다 몇배나 되는 먹는 기름을 얻는것은 물론 항암치료에도 적용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때 그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은 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보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특히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시기 소년빨찌산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이 암으로 신고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함흥화학공업대학을 졸업한 그에게 있어서 약학분야는 전공이 아니였지만 살구씨기름을 개발한데 이어 스스로 이 연구과제를 걸머졌다.

참고문헌들을 탐독하며 항암성약물추세를 파악하였다.

세계적으로 불치의 병으로 명명된 암은 대체로 비타민B_{17}의 결핍증에 의한것이였다.

하여 당시 많은 나라들에서 비타민B_{17}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 개발리용되고있는 약물들은 합성항암제, 항암성항생제였는데 이 약들은 정상세포와 암세포에 다같이 작용하는 부족점이 있었다.

윤치응연구사는 항암성약물개발에서 암세포에만 작용하고 정상세포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약물개발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여 25년간의 고심어린 연구끝에 천연고려약재인 살구씨에서 유효성분인 고순도아미그달린을 추출분리정제하여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비타민B_{17}주사약을 내놓았다.

수백차의 동물실험과 림상과정을 거쳐 이 주사약의 효능은 검증되였으며 국내특허를 받게 되였다.

모란봉고려약공장에서 약제사로 일하는 윤혜영은 아버지가 개발한 비타민B_{17}주사약에 새로운 천연활성물질들을 첨가하여 그 효능을 배로 높이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있다.

사람들은 이들부녀를 두고 살구《박사》라고 부르고있다.

비타민B_{17}주사약, 여기에는 불치의 병에 도전하여 수십년을 이 약개발에 바쳐온 부녀연구사의 온넋이 깃들어있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비타민B_{17}주사약생산을 다그치는 윤혜영(왼쪽으로부터 두번째)

상식

간기능을 좋게 하는 초마늘

초마늘은 간기능을 왕성하게 하고 간장질병을 예방한다.

마늘의 효과는 병이 생긴 다음보다 예방단계에서 뚜렷하다.

식초자체가 몸에 좋기때문에 초마늘의 효과는 더욱 크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간의 독풀이기능을 높여준다.

마늘은 몸에 해로운 유독성물질이 밸벽으로부터 흡수되는것을 막아 간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마늘을 식초에 절임해두면 활성이 변하지 않는다. 초마늘을 만드는 방법은 껍질을 벗긴 마늘을 아구리가 넓은 병에 넣은 다음 식초를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붓고 뚜껑을 덮어둔다.

한주일후부터 식사할 때 1~2개씩 먹으면 된다.

*　*　*

스스로 택한 길

뿌 리

지난 7월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제청년대학생 여름철체육경기대회 《연해변강의 청춘》 탁구경기에서 김철주사범대학의 김현경선수가 우승을, 2024년 청년탁구선수권대회(18살미만)에서 방례응선수가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들은 평양시의 선교구역과외체육학교에서 탁구의 첫걸음을 뗀 선수들이다.

《곡식도 종자를 어떻게 심고 가꾸는가에 따라 알찬 열매가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와 만난 평양시의 선교구역과외체육학교 탁구지도교원 차정심이 한 말이다.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차정심은 우수한 탁구선수후비들을 키워낼 포부를 안고 어느한 소학교의 탁구교원으로 자기의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소조원들의 탁구기초기술을 튼튼히 다져주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그는 어린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새 기초훈련방법들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훈련에서 지루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것과 함께 록화편집물을 통한 모의훈련을 근기있게 하여 모든 동작들이 몸에 푹 배이게 하였다.

기초기술동작을 일정하게 숙련한 후에는 매 소조원들의 성격과 체질적특성에 맞게 특기기술을 련마시켰다.

그의 고심어린 노력은 해마다 진행하는 전국적인 소학교체육학급체육경기에서 학교의 탁구소조가 10련승을 쟁취할수 있게 하였다. 그후 평양시의 선교구역과외청소년체육학교(당시) 탁구지도교원으로 조동된 그는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새로운 훈련방법들을 부단히 창조해나갔다.

하루종일 소조원들의 훈련지도를 위해 땀을 흘리고나면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듯하였지만 그는 밤늦게까지 세계적인 탁구명수들의 경기장면을 록화한 편집물들을 분석하면서 최근 탁구기술발전추세와 그에 따르는 후비선수육성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탐구하였다. 유연성과 공다루기, 모방동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음악을 리용한 준비운동방법도 이 과정에 나온것이다.

선교구역과외체육학교 탁구지도교원 차정심(가운데)

20여년세월 탁구선수후비육성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그를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고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불러주었다.

오늘 그가 키워낸 소조원들은 여러 체육단들에서 촉망되는 탁구선수들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스스로 만짐을 진 부부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자강도 향산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로동자 리정철과 그의 안해 김진경도 있다.

군내 인민들은 이들부부를 두고 정말 쉽지 않은 청년들이라고, 갓 살림을 편 그들이 자기 집일보다 나라일부터 먼저 생각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하다면 리정철과 김진경이 어떻게 되여 만사람의 찬탄을 받게 되였는지.

그들이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기 시작한것은 아들 리량평의 백날잔치가 있은 후부터였다고 한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부모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량평이를 축복해주며 기뻐하였지만 리정철은 부끄러워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과연 내가 아들에게 자랑스런 아버지란 말인가?)

그는 뼈아프게 흘러간 지난날을 돌이켜보았다. 아들 삼형제중 맏이로 태여난 그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잘못 뗀적도 있었다.

그러던 그가 **김정일**소년영예상수상자인 김진경을 만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백날잔치날 그는 《내것이라 자부할수 없는 지난날이 부끄럽다. 이제부터라도 뚜렷한 자욱을 남겨 아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런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안해에게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안해도 남편을 적극 도와나섰다.

그때부터 그들부부는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애썼다.

자강도 향산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로동자 리정철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의가 깃든 많은 량의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였으며 군농촌살림집건설장에도 많은 량의 자재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올해 정초에는 나라의 해군무력강화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였다.

지금도 그는 군염소목장건설장에 자진하여 달려나가 헌신하고있으며 그러한 그를 김진경이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청년, 스스로 일감을 찾아쥐고 뛰는 청년, 군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

이것은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그들부부에 대한 군내 인민들의 평가이다.

오늘도 리정철, 김진경부부는 조국의 륭성번영에 자기 가정의 행복,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택한 길을 걷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일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리영철

향료연구소 소장 최등광

천연향료연구에 바쳐진 40여년

조국에서 생산하고있는 해당화절대유를 비롯한 천연향료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인기를 끌고있으며 날을 따라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여기에는 천연향료분야의 권위자로 세계향료업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평양천연향료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최등광의 창조적사색과 정열,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는 지난 40여년간 휘발성용매추출법에 의한 꽃절대유추출기술을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7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일본땅에서 나서자라 인간이하의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온 그는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마음껏 배우고싶었던 꿈을 꽃피울수 있었다.

한날한시에 조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에 학용품까지 안겨주는 꿈 아닌 현실, 명절날이면 이웃들간에 서로서로 맛나는 음식을 해가지고 오가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간생활을 가슴벅차게 체험하는 그에게 있어서 조국의 향취는 참으로 소중한것으로 간직되게 되였다.

그는 소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게 되였다.

졸업후에는 이역땅에서 시들어가던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애썼다. 그 과정에 그는 가치있는 2건의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아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나라에서는 그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을 평가하여 천연향료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사로 일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된듯싶었다.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는 선진수준의 천연향료를 반드시 내놓으리라.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

그 시기 세계향료업계는 합성향료방향으로 나가고있었다. 남달리 자존심이 강한 그는 천연향료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세계를 압도할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천연향료연구에 도움이 될만한 참고서적들이 별로 없는 연구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것이나 다름없었다.

초행길을 걷는 그였지만 동요나 주저를 몰랐다.

전국각지의 여러곳을 편답하던 그는 조선동해의 바다기슭에 피여난 해당화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그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해당화에서 조선사람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찾아낼 착상을 하게 되였다.

연구사들과 함께 실험결과를 토론하고있는 최등광

1kg의 정유를 실험실적방법으로 추출해내자면 몇t에 달하는 꽃이 요구되였다. 많은 로력과 자금도 들여야 했다.

그는 수백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해당화에서 절대유를 뽑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세계향료연구분야의 권위있는 학자들은 조선에서 천연향료분야의 정수를 이루는 절대유추출기술을 개발한데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천연향료의 질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분발한 그는 해당화절대유외에도 청송향, 누운잣나무정유, 창포정유, 차조기정유, 박하정유 등의 여러가지 천연향료들을 개발해냈다.

그후 천연향료연구개발사업에서 실용화단계에로 이행하는 전환기를 맞이한 그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오미자향, 박하향, 생당쑥향, 인삼향, 쑥향, 솔잎향을 비롯한 나라의 식료공업과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향료들을 개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근에는 천연향료를 개발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심화시키고있다.

올해 그의 나이는 73살이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천연향료를 연구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최등광이 개발한 향료들의 일부

상식

댕 기

댕기는 원래 처녀들이 땋은 머리의 끝을 매고 장식하는데 쓰던 치레거리이다.

고구려벽화무덤에 의하면 세나라시기에 와서 이미 여러가지 댕기가 사용되여왔다.

발해 및 후기신라에서도 댕기가 다양하게 발전하여왔는데 다섯가지 빛갈의 화려한 댕기들은 다른 나라들에까지 수출되는 정도였다. 고려시기에도 댕기는 녀성들이 즐겨 쓰는 치레거리로 되였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그 종류가 더 많아졌다.

댕기는 용도에 따라 쪽댕기, 제비부리댕기, 앞댕기, 큰댕기, 도투락댕기 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어린이용댕기는 따로 있었다.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해온 조선녀성들은 한쪼박의 천도 모아두었다가 귀여운 어린이에게 댕기를 만들어 달아주었다.

이처럼 댕기는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과정에 그 종류가 많아지고 독특한것으로 하여 이채롭게 사용되여온 조선녀성들의 치레거리들중의 하나였다.

*　*　*

과학의 꿈을 키워주는 곳

평양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소조에서

학생들을 현실과 결부된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착상가,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줄 아는 인재들로 키워내는것, 이것은 평양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소조지도교원들의 목표이다.

지난 시기 평양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소조에서는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3 000여명의 국가기술기능급수를 소유한 소조원들을 배출하였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전국적인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과학기술소조원경연 및 기술기능급수판정에서 이곳 소조원들이 우승한 비결을 물었을 때 평양학생소년궁전의 리향옥지도교원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호기심이 많고 생각이 엉뚱한것이 중학교시기의 학생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맞게 우리는 창조력과 실천능력제고를 기본으로 하는 선진교육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교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도교원들은 실험, 실습, 제작 등을 기본으로 하는 소조의 특성에 맞게 스팀(STEAM)교육을 받아들여 소조원들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활용능력제고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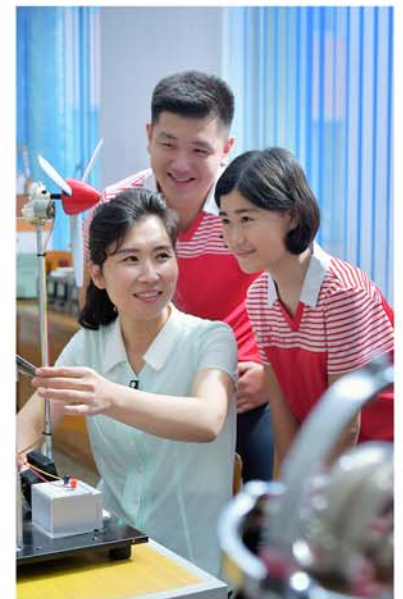
이들은 가상현실기술, 증강현실기술,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초과학지식을 튼튼히 다져주는것과 함께 매 과목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사물현상을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통일적인 관계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부단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소조원들이 학과목들사이의 계선을 뛰여넘어 배운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있다.

정보기술소조, 전자기구소조에서도 CDIO교육방법을 받아들여 소조원들의 착상력과 프로그람작성능력, 장치제작능력을 부단히 높여주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적인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과학기술소조원경연 및 기술기능급수판정에서 우승을 쟁취한 홍류경은 하나의 사물현상을 놓고도 여러 분야의 지식과 과학적원리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니 정말 좋다고 하였다.

스팀, CDIO 등 교육방법의 실효성을 깊이 체감한 지도교원들은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더 많이 탐구도입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조국의 따뜻한 사랑이다

- 사회과학원 법률학연구소 소장 홍철화와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할데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싶다.

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5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2024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65호로 수정보충되였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 공화국정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법화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해외동포들의 권익옹호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 장, 54개조로 구성되여있다.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을 국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정책으로 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기자: 해외동포들은 어떤 사회정치적권리를 보장받는가?

소장: 사회정치적권리는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이 지니고 행사하는 자주적권리이다.

그러므로 해외동포들은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맞게 해외동포들의 공화국국적입적과 사회정치활동, 해외조선공민의 대의원선거참가 등 사회정치적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한다.

이밖에도 결혼과 리혼, 립양과 파양의 권리,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 귀국 및 래왕의 권리,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 신소청원의 권리 등을 보장한다.

기자: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소장: 해외조선공민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해외조선공민들은 공화국령역안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아도 공화국공민으로서 국가와의 법적소속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뿐 아니라 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률적보호를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기관들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들에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들의 합법적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귀국한 해외동포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거주와 직업선택,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 학업과 살림집보장 등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받는다.

기자: 해외동포들에 대한 민족교육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소장: 민족교육은 자기 민족의 자유와 독립,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도록 민족성원들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실정에 맞게 키우는 교육이다. 해외동포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중시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해외동포(단체)의 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준다.

조국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대해준다.

기자: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들에게 취해지는 우대조치는 무엇인가?

소장: 우선 국가적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들에는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부여 등 특혜를 적용한다.

또한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들에는 특별한 우대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조선공민의 국가토지리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한다.

뿐만아니라 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준다.

이외에도 해외동포투자가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는 해외동포들이 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받는 우대치료와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그리고 조국에서의 기업창설 및 운영에서의 권리보장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다.

참으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동포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이며 조국의 따뜻한 사랑이다.

* * *

수필

내가 설 자리

대성산 주작봉마루.

천지를 물들이는 붉은 기폭에 안겨 투사들이 서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지 반세기도 훨씬 지났건만 렬사들은 한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의 표정으로, 인생의 참된 자욱을 남긴 가장 떳떳한 모습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서있다.

나는 숙연한 눈길로 한명한명 투사들의 모습을 우러렀다.

나와 같은 나이의 투사도 있었다.

《22살, 그 아까운 꽃나이를 서슴없이 바칠 때 두려운것이 없었습니까?》

조용한 미소속에 나를 타이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가 설 자리를 아는 사람에겐 두려운것이 없단다.》

자기가 설 자리!

이 세상에 인간이 설수 있는 자리는 얼마나 많은가.

나름대로 선택할수 있는 그 많고많은 자리중에 굳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그 가혹한 위치를 스스로 찾아선 사람들.

희망, 사랑, 창창한 청춘을 깡그리 묻으며 투사들이 순간의 탈선을 몰랐던 그 하나하나의 자리들에 오늘은 웅장화려한 초고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섰다.

투사들이 섰던 그 자리들에서 오늘은 렬사들의 영생을 기원하듯 축포가 터져오르고있다.

그렇다.

자기가 설 자리를 알고 그 위치를 찾은 선각자들에게 조국은 영생이라는 가장 숭고한 자리를 내여 아름다운 조국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 언덕에 세워주었다.

재일동포사회에도 누구나 선뜻 서기를 주저하는, 그러면서도 누구든 반드시 서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

맑은 날, 좋은 날보다 궂은날, 힘든 날이 더 많은 험한 자리이다.

허나 투사들이 그러했듯이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인생의 최고봉, 영광의 상상봉과 잇닿은 그 위치에 오늘은 내가 기꺼이 설것이다.

애국이라 부르는 성스러운 그 자리에 인생의 주소를 정하고 대성산의 주작봉마루를 영원한 삶의 좌표로 안고 스스로 선택한 그 위치를 충직히 지키리라.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력사지리학과 4학년 박시연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동포여러분,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하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이해의 마지막달이 왔습니다.

걸어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조국과 숨결을 함께 해온 동포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올해는 조국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밑천이 마련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에 박차를 가하여 중점과업들을 수행한것은 물론 인민을 위한 살림집들이 수도와 지방에 일떠서 1년 사계절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였습니다. 조국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그대로 동포들의 기쁨이고 자랑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동포여러분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제10차전원회의 확대회의소식을 전해듣고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 못지 않게 새롭고 의의있는 성과들을 이룩해나갈 자기들의 결의들을 출판물들에 발표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맞으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동포조직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으며 다채로운 경축모임,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제3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진정이 담긴 공연록화편집물도 보내여왔습니다.

서장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남성독창 《조국은 원수님》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애국의 한길만을 걸어가려는 재일동포들의 신념을 보여준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도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최경호, 리상길, 한선녀, 리홍관을 비롯한 재중동포예술인들은 혼성2중창 《영원한 그 미소》, 남성독창 《위대한 사랑의 길이여》를 비롯한 종목들에 위대한 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는 마음을 담았으며 녀성독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에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구가하였습니다.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무대에 나섰던 재로씨야동포가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진정 동포들의 이름, 사는 곳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의 가슴속에 차고넘친것은 하나와 같았으니 그것은 바로 멀리 해외에 살아도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려는 마음이였습니다.

하기에 동포들은 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자기들의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지난 9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국경절을 성대히 경축하였으며 경루동과 광천닭공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전변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정말 추억도 많아지고 긍지높이 돌이켜지는 한해의 취재수첩을 우리는 쉬이 덮을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해에도 동포여러분이 더 건강한 몸으로 동포사업과 애국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　　*　　*

인민의 편의와 리익은 모든 사업의 기준

- 평양시 대동강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금철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오늘 우리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고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일군이라면 누구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멸사복무라는 말을 외울수록 뜨겁게 안겨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로정을 수놓아가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지난 7월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큰물로 인한 엄중한 피해들이 련속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시급한 복구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 앞서 일군들과 함께 고무단정에 오르시여 피해상황을 직접 료해하시였습니다.

인민이 보금자리를 잃은 아픔을 10배, 100배로 풀어줄 복구대책을 현지에서 세우지 않으시고서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 없으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자신의 신변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피해지역 한복판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였던것입니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가슴에 새기였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 이것은 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영예이며 이 길에는 만족이나 끝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기자: 우리가 알고있기에는 대동강구역인민위원회에서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한 일을 많이 찾아하고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모든 사업의 기준에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놓고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일군들이 매개 동들을 맡고 내려가 주민들의 애로가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인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찾아내여 풀어주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구역안의 편의봉사망들과 급양망들, 치료예방기관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봉사와 치료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조건과 환경보장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으며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하여 모두가 학부형이 된 심정에서 구역관내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들에 나가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시키고있습니다.

공원들을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 등에도 우리 일군들이 솔선 앞장서고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속으로 들어가 인민을 위한 일에 땀을 아끼지 않을수록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꽃이 더 활짝 피여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군들이 고생하는것만큼 인민들의 행복이 커지고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만짐을 지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　　*　　*

시중호반의 전쟁로병보양소

군전체가 명승지로 되여있는 통천군의 이름난 시중호반에는 강원도전쟁로병보양소가 자리잡고있다.

강원도전쟁로병보양소는 모든 도들에 전쟁로병보양소를 건설하여 로병들의 건강을 보살필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조치에 따라 2017년에 준공되였다.

보양소에는 오락실과 치료실, 운동실을 비롯한 각종 봉사시설들과 휴식장소들이 꾸려져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조선동해의 명승으로 이름난 시중호와 통천군의 아름다운 바다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것으로 하여 보양생들의 마음을 보다 즐겁게 해주고있다.

준공후 이곳에서는 수십기의 보양을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 천수백명의 로병들이 보양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보양기간 전쟁로병들은 자기들의 신체적조건과 심리적특성, 기호와 취미에 맞게 운동과 오락, 낚시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오락과 함께 낚시는 보양생들의 생활에서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고있다. 오락실에서 진행되는 장기, 윷놀이 등의 열띤 유희경기는 로병들에게 젊음을 가져다주고있다. 그리고 시중호의 낚시터에서 붕어며 쏘가리 등을 낚아내느라 떠들썩하는 보양생들의 활기띤 모습도 볼만하다.

저녁무렵이면 보양생들은 바다가를 거닐며 산책도 하고 TV와 록화물들도 보면서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군 한다.

뿐만아니라 명승지들에 대한 유람과 유치원어린이들의 공연 등도 보양의 나날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있다.

보양소에서는 보양기간 로병들의 생일상도 크게 차려주고 축하해주며 그들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도록 하고있다.

강원도 원산시에서 온 박송흠, 김영란로병부부는 보름동안의 보양생활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올 때마다 이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싶은 소망을 느낀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통천군에서 온 리윤명은 보양소에서 매끼 입맛에 맞는 영양식사를 차려주고 보약제들을 보장해주니 혈기가 왕성해지는것이 알린다. 정말이지 우리 보양생들을 위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보양소소장 배성희는 《전쟁로병들에 대한 국가적관심과 혜택은 참으로 크다. 우리는 이 국가적혜택이 로병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2023년 12월에 진행된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공연중에서

접근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

조선롱맹경제문화교류사는 2012년 12월 14일에 창설되였다.

교류사에서는 시력, 청력장애자들이 사회생활에 주동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협조하고있다.

현재 교류사에는 조선롱인축구단과 롱인건재제작소, 손말조기양성반, 손말통역원양성실 등을 갖춘 조선롱인협회, 조선맹인협회, 조선손말통역원협회가 있다.

교류사의 이 모든 단위들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롱인, 맹인들과의 사업을 원만히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히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 꾸려진 지역협회를 통해 롱인, 맹인들의 직업, 교육, 문화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수요를 장악하여 국가정책작성에 이바지하고있다.

얼마전에는 점글자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편찬과 발행, 보급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시력장애자들이 사회활동에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청력장애자들을 위한 손말도서의 출판과 손말자막편집물제작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교류사에서는 나라의 모든 청력장애자들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인터네트망에 도입할 손말자막편집물을 청력장애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갱신하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이외에도 교류사에서는 지난 기간 여러 국제경기들에 진출하여 자기들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해온 조선롱인축구단 선수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훈련조건과 기재들도 보장해주고있다. 그리고 피복제작과 리발, 미용을 비롯한 직업기술을 소유한 청력장애자들의 기술전수활동도 조직해주고있다. 청력장애자 김광호는 피복제작기술과 리발기능을 끊임없이 높여 많은 사람들의 미적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만족시켜줄뿐 아니라 기술전수활동에서도 큰 역할을 놀고있다.

교류사에서는 롱인, 맹인관련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민족협회들과의 친선과 협조, 교류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들,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의 요구를 관철하여 롱인들과 맹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적극 참가하도록 접근가능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교류사의 활동은 계속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러해

2024년 6월 과학기술전당에서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이 진행되였다.

희망을 꽃피워가는 장애자들

태권도에 넘쳐흐르는 정서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족의 향기》란에서는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넘쳐흐르는 정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언제인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만났던 재중동포 신영희녀성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중국의 단동에서 학생들을 데리고온 그는 태권도복을 입고 날렵하게 몸을 날리는 조국의 학생들을 보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에는 다른 민족무술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자기의 빛갈이 있습니다. 내 자식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배워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기회에 태권도를 배웠던 저는 그에게 도를 닦으려면 기초동작들을 파악하는것과 동시에 매 틀이 담고있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동작들을 원리적으로 파악하고 수련할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나마 알고있는것을 이야기하고싶어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의 미안한 감정이 아직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있어 오늘 신영희녀성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태권도를 지망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통무도에 넘쳐흐르는 정서를 김영빈 조선태권도위원회 사현의 이야기를 통해 펼쳐보이려고 합니다.

김영빈사현은 몇해동안 벨라루씨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태권도선수들을 키운 전적이 있는 국제사범입니다.

나도 이 사범에게서 얼마간 태권도를 배운적이 있습니다.

김영빈사현은 말하기를 태권도는 그 어떤 초인간적이며 환상적인 힘을 키워주는 무술이 아니라 높은 정신수양과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수련과정에 사람이 자기 몸에 지니고있는 모든 정신, 육체적힘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무술이라고 특히 24개로 이루어진 태권도의 틀은 민족의 력사를 형상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 틀에는 력사적시기마다 흔적을 남긴 왕들과 명인, 명장들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건국시조 단군의 이름을 단 단군틀이라든가 젊은 나이에 국토를 넓혀 광개토왕으로 불리운 고구려의 영락대왕의 업적을 반영한 광개틀, 고구려시기 애국명장들인 연개소문, 을지문덕을 형상한 연개틀, 을지틀,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를 지켜싸운 서산대사의 이름을 단 서산틀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권도의 틀들은 자기 고유의 주제를 안고있습니다.

첫 틀인 천지틀에서는 우주의 형성과 인간의 출현, 인간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19개의 동작과 우주공간을 의미하는 연무선으로 형상하고있는가 하면 단군틀에서는 단군이 수려한 평양일대에서 이 땅, 이 하늘에 미래가 빛나길 바라며 나라를 세운것을 21개의 동작으로 펼쳐보이고있습니다.

싸움에 나선 사람은 적의 총칼에 찔리워 피흘리는 가슴을 움켜쥐고도 맞받아나갈 각오를 지녀야 하며 지력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양해나가야 한다는것을 24개 동작에 담은 도산틀, 중앙과 지방에 날래고 끌끌한 군사들을 두고 병쟁기를 만들고 훈련도 강화하여야 그 어떤 침략자와도 맞서 완전히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38개 동작으로 형상한 률곡틀…

이렇게 태권도의 틀들은 민족의 력사속에 개인의 운명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그 순위를 보장하고있기때문에 한 동작을 수행해도 이런 의미를 알고 수련할때 동작의 정확성이 보장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권도의 률동이라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태권도의 률동이란 부드럽고 힘있는 기본동작을 조화롭고 규칙적으로 반복해나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태권도의 고유한 민족정서가 이 률동에 반영되여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족의 성격과 정서를 반사하는것으로 하여 태권도에는 민족의 넋과 슬기가 깃들었다고 말하고있는것입니다.

하여 오늘 정통무도를 배우려는 수련생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있습니다.

조국의 학교들에는 태권도소조가 있으며 남녀로소 누구나 태권도를 즐겨 배우고있습니다.

태권도의 매력은 지경을 넘어 국제태권도련맹아래 145개의 민족협회와 수천만의 태권도수련생들이 망라되여 5대륙의 연무선이 하나로 이어지고있는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태권도도장을 쉽게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동포여러분들도 해외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며 정통무도에 넘쳐흐르는 민족의 정서를 한껏 느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태권도는 조국에서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광범히 보급되고있으며 그 수련생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정방산의 가을

정방산은 산마루들이 서로 잇닿아 정방형을 이루고있다 하여 정방산이라고 부른다.

정방산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20리 떨어진 정방리에 자리잡고있다.

정방산은 독특한 자연경치로 하여 예로부터 유명하였다. 옛 문헌에는 《해서(오늘의 황해남북도)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는 황주 정방산이 제일이다.》라고 씌여있다.

갖가지 희귀한 꽃들이 만발하는 봄, 록음짙은 여름,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신묘스러운 설경은 정방산의 특이한 경치이다.

정방산의 살구꽃과 배꽃 등 온갖 꽃들이 활짝 피여나 산을 뒤덮을 때면 마치도 꽃구름이 피여오르는듯하고 산발들이 꽃구름우에 둥실 떠있는 것같기도 하다. 하기에 정방산의 봄경치를 으뜸으로 일러왔고 《정방산의 경치를 알려거든 꽃피는 봄날에 오라.》는 말까지 있다.

록음짙은 여름이면 목란꽃이 송이송이 피여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가을이면 갖가지 나무들에 단풍이 어려 푸르렀던 산을 울긋불긋 단장시켜준다.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을 보여주듯 소나무가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있는 겨울의 풍치 또한 이채롭다.

정방산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애국심이 깃든 정방산성과 남문루, 성불사와 5층돌탑 등의 력사유적들이 있어 인민들의 사

정방산의 봄

정방산의 여름

랑을 받아왔다.

정방산성은 고려(918년-1392년)시기에 처음 쌓은 뒤 1637년에 크게 개축하였다. 둘레가 12㎞인 정방산성은 황해도지방의 제일가는 요새로 일러왔다. 옛날에는 이 네 성문들에 다 웅장하고 화려한 문루들이 세워져있었다. 지금 남아있는 남문루(정방루)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1950년-1953년)시기 폭격에 의하여 불타버렸던것을 원상대로 복구한것이다.

성불사도 원상대로 복구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고있다.

정방산은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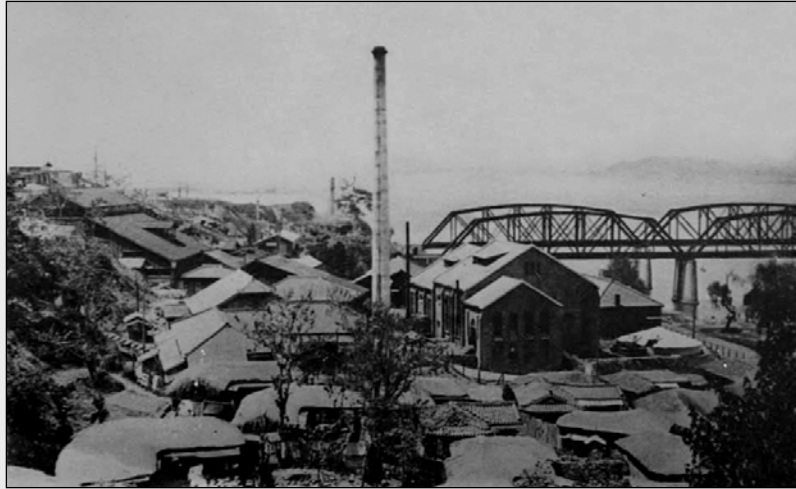
글 본사기자 김영은
사진 본사기자 김혁주
김혁철

정방산성

정방산의 성불사와 5층돌탑

정방산을 찾은 근로자들

정방산을 찾은 해외동포들

지하자원략탈을 통해 본 일제의 죄행

일제가 조선의 지하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선광연구소》

일본은 쩍하면 《경제대국》이라고 으시대며 돈주머니를 흔들어대고있다.

하지만 반드시 새기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일본의 《번영》의 기초가 누구의 피와 땀, 재부로 쌓아졌는가 하는것이다.

지난 세기초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이 땅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략탈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10년대초부터 우리 나라의 광물자원분포상태를 모조리 조사장악한 일제는 1915년에 《조선광업령》을 조작공포하여 《법》적으로 저들이 조선의 지하자원을 독점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우리 나라의 금자원에 눈독을 들인 일제는 그 략탈에 적극 나섰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략탈에 기승을 부린 일제는 각종 보조금까지 설정해놓고 금광개발에 열을 올리였다. 지어 사금까지 략탈하기 위해 산간벽지와 강하천지대, 농경지에도 채취장을 설치하고 땅을 마구 파헤쳐놓아 못쓰게 만들었다. 일본이 대폭 줄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금은 근 400t에 달한다.

일제는 철광석도 대대적으로 략탈해갔다. 1914년-1918년에만도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100만 7 000t의 철광석을 략탈하였다. 일제의 철광석략탈은 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개시를 전후하여 극도에 이르렀다. 침략전쟁의 확대로 하여 빚어진 철의 부족현상을 타개할 목적밑에 일제는 종전에는 철광석략탈을 위주로 하였다면 전쟁개시후부터는 현지에서 직접 철을 생산하여 실어가는 방법에 매달렸다. 1944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는 현지에서 900만t의 선철과 강철을 뽑아갔다. 여기에다 일본으로 실어간 철광석량까지 계산하면 그것은 실로 막대하다.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을 깡그리 략탈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석탄자원략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일제는 방대한 규모로 확대된 군수공업과 함선의 연료를 보장하며 일본국내의 알탄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석탄략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1912년-1916년 5년동안에 224만 8 235t의 막대한 량의 석탄을 빼앗아갔다. 1945년에는 1 000만t이상에 달하는 석탄략탈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말기에는 조선인탄광로동자 한사람당 년간 100t이상의 석탄을 무조건 생산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1935년에 179만t의 무연탄을 략탈해갔다면 최고생산년도인 1944년에는 510만t을 그리고 이 기간에 모두 2 600여만t 생산하여 그중 800여만t을 일본으로 가져갔으며 나머지는 조선경내의 금속공장을 비롯한 제놈들의 군수생산기업소에서 리용하였다.

우리 나라의 특수광물자원에 대한 략탈 또한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점차 전쟁을 확대함에 따라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특수광물자원에는 망간, 크롬, 티탄, 연, 아연, 니켈, 코발트, 석, 안티몬, 중석, 몰리브덴, 동, 알루미니움, 수은 등이 속한다. 그중 일제는 1934년-1944년 10년동안에 21만 1 000여t의 아연을 일본으로 략탈해갔다. 일제는 조선에서 생산한 탕그스텐의 90%이상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도발후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선의 자원을 략탈해가다 못해 우리 인민들이 가정에서 쓰던 놋그릇, 놋수저, 놋비녀, 놋가락지까지 빼앗아갔다.

오늘날 일본이 자랑하는 《경제적번영》은 이렇게 우리 인민의 피와 땀,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이루어진것이다.

말그대로 과거 일본의 력사는 침략과 략탈의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범죄적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일봉

함경북도의 주남탄진에서 석탄략탈에 광분하고있는 일제

일제가 철략탈을 감행한 겸이포제철소

조선인민이 가정에서 쓰던 놋그릇, 놋수저를 비롯한 귀금속략탈에 열을 올리고있는 일제

상 식

홍복사7층탑

홍복사7층탑은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동 홍복사터에 있던 고려(918년-1392년)시기의 돌탑이다. 탑은 여러 차례 옮겨져 지금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의 룡화사 앞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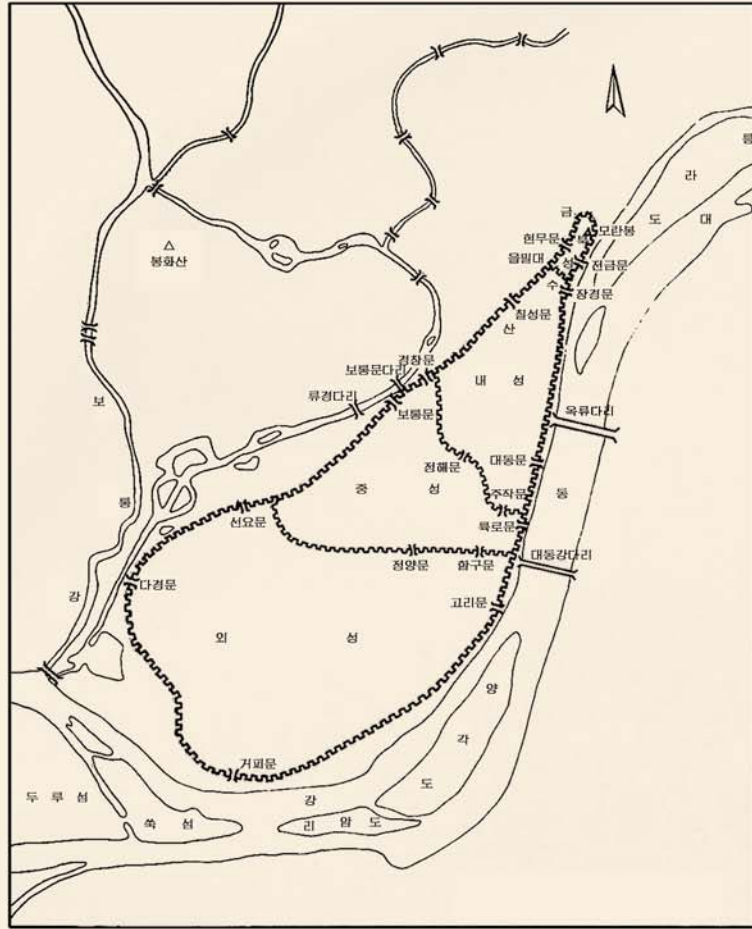
탑의 바닥돌과 기단, 탑몸 등 주요구성요소들의 평면은 6각으로 되여있다. 탑의 높이는 5. 35m이며 아래대돌 한변의 너비는 1. 29m이다.

탑몸의 매층 몸돌에는 모서리기둥을 새겼으며 면에는 감을 만들고 그안에 불상을 돋우새겼다. 1, 2층의것은 3존불상이고 그우의것은 단독불상들이다.

탑은 전반적으로 균형이 째이고 조각이 섬세하며 부드럽다.

흔치 않은 6각평면의 돌탑이면서 고려돌탑의 풍격을 충분히 갖추고있는 홍복사7층탑은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기술과 예술적재능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유물이다.

본사기자 송대혁

평 양 성

평양성 평면도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는 고구려(B.C. 277년-A.D. 668년)의 수도성이였던 평양성도 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것은 427년이였다.

평양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내려진 성지이고 동방의 첫 국가였던 고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적중심지로 발전해온 유서깊은 곳이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것은 고조선의 당당한 계승국으로서 단군조선이래 면면히 이어지고 고수되여온 민족적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고구려는 강력한 국력에 기초하여 도시전부를 성벽으로 둘러막은 새 수도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성이다.

552년-586년사이에 쌓은 평양성은 북쪽에는 험한 산릉선과 깎아지른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모란봉이 솟아있고 동, 서, 남쪽의 세면에는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자연적인 해자(성벽밖에 적이 접근하기 어렵게 파놓은 참호시설인데 주로 물을 채워둔다.)를 이루고있어 외적의 침입에는 불리하고 방어에는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충분히 갖추고있었다.

평양성의 바깥성벽은 모란봉을 북쪽끝으로 하고 서남으로 을밀대를 타고 보통강을 따라 뻗다가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치는 목에서 동북으로 꺾이여 대동강을 거슬러 대동문을 지나 다시 모란봉에 이르렀는데 그 둘레는 약 16km이다. 평양성은 산성의 우점과 평지성의 우점을 종합하여 고구려사람들이 창안해낸 평산성형식의 새로운 수도성이였다.

평양성안은 성벽들로 가로막아 내성, 중성, 외성, 북성의 4개 부분성으로 나누었다. 부분성들의 성벽까지 합친 성벽의 총연장길이는 약 23km이다. 평양성에는 7개의 장대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것은 내성의 을밀대와 북성의 최승대이다.

《평양성은 북쪽은 산을 등지고 세면은 강에 막혔으며 성이 또한 높고 험하여 쉽게 함락시킬수 없다.》고 한 력사기록만 보아도 평양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철통이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고구려인민들의 창조적지혜가 깃든 평양성은 동방의 강대국이였던 고구려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과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영은

글자새긴 고구려성돌

대동문

보통문

칠성문

실학자 홍대용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실학자들속에는 홍대용(1731년-1783년)도 있다. 자는 덕보이고 호는 담헌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던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30대에 학자로 되였다.

1765년에 사신일행으로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학자들과도 교제하였으며 그 나라에 전해진 유럽의 자연과학과 기술도 료해하였다. 귀국후에는 실학연구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1774년에 선공감 감역으로 되고 그후 사헌부 감찰, 영천군수 등을 지냈으며 1783년에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는 실학적립장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당시로서 발전된 자연과학적견해를 내놓았다. 실학자들가운데서도 자연과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알려져있는 그는 《천원지방설》과 《천동지정설》을 부정하고 《지원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지구가 둥근것은 월식때 그 그림자가 둥근것만 가지고도 증명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둥근 지구표면에 사람과 만물이 붙어있을수 있는것은 지구중심에로 끌리는 힘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바람, 구름, 비, 눈, 우박, 우뢰, 번개 등 기상현상에 대하여서도 종래와 달리 자연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으며 일식과 월식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옳은 견해를 제기하였다.

수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실용적인 수학책도 썼다.

자연과학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자연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를 내놓은 그였다. 세계의 시원을 우주공간에 충만된 물질적인 《기》라고 인정하면서 기일원론적유물론의 립장을 고수하였다. 우주에 대하여 그것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면서 이루어진것이며 《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운동하므로 우주세계는 시초도 종말도 없고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진보적인 사회정치개혁안도 제기하였는데 문벌숭상, 토지집중, 과중한 조세수탈, 군사력의 약화, 사대주의사상 등을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한 개혁안으로 4민《평등》론을 내놓았으며 인재등용에서 봉건적세습제와 문벌제를 반대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과 학식에 따라 등용할것을 제기하였다. 토지문제에서는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공전제를 수립하고 가정을 가진 농민장정 한사람당 2결씩 주며 10분의 1세와 그밖의 약간의 세를 설정하고 기타 잡다한 세금은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군대를 양성하여 국방을 강화하며 사대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봉건제도를 바로잡고 공고화하며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국가의 통치질서를 강화할것을 목적으로 한것이였다. 그가 제기한 사회정치개혁안은 일련의 시대적제한성은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진보적인것이였다.

저서로는 《담헌서》가 있다.

* * *

유모아

린 색 한 친 구

정지윤(1808년-1858년,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시인, 자는 수동, 경안이고 호는 하원이다.)이 친구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갔는데 린색한 친구는 보잘것 없는 술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모처럼 찾아왔는데 아다싶이 산골이 돼서 뭐 나는게 없소그려. 안주는 없어도 술이나 많이 마시라구.》

《아무렴, 산골이란 그렇지 별수있나. 자, 그럴것없이 내가 타고 온 저 하늘소를 잡아 안주해서 한잔하세.》

《아니, 하늘소를 잡다니? 그럼 무얼 타고가려나?》

정지윤이 마당에 한가득 널려있는 닭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뭐 걱정할게 있나. 난 저기 저 큼직한 수닭을 타고가지.》

* * *

지명유래

평성시

평성시는 평안남도의 남부에 자리잡고있는 도소재지이다.

평성시는 수도 평양시와 잇닿아있다. 1965년에 평성구로 되였다가 1969년에 평성시로 되면서 평안남도의 도소재지로 되였다.

평성시는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자그마한 산골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에 큰 도시를 일떠세울 원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몸소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을뿐 아니라 도시이름까지 친히 《평성》이라고 지어주시였다.

평성이라는 고장이름은 수도 평양을 가까이하고있는 평양의 위성도시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오늘 평성시는 현대적인 과학문화도시로, 현대적인 설비와 기술로 장비된 경공업과 기계공업을 가진 공업도시로, 농업생산지역으로 전변되였다.

* * *

장기수풀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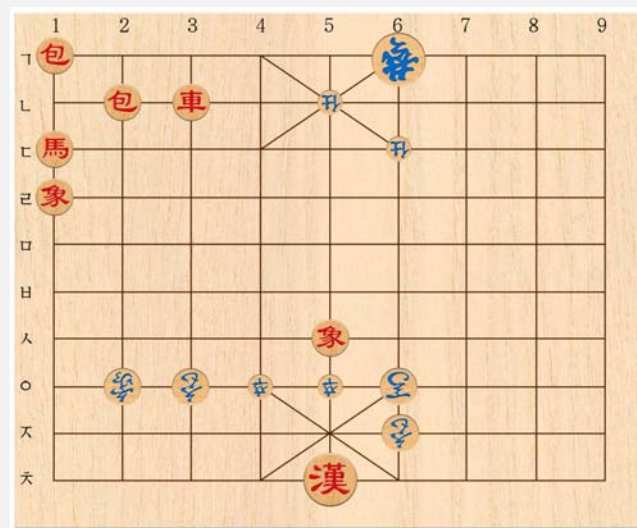
장기격언

백발에 상다리가 제일

쪽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단계에서 상의 활동이 크다는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마감단계에서 상이 졸 또는 다른 쪽들과의 결합으로 경기를 결속하는 실례가 많은것으로 볼 때 이것은 상을 첫시작에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뜻하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23)에 대한 답

ㄷ8차ㄷ6, ㄱ4포ㄷ6, ㄴ8차ㄱ8, ㄱ6궁ㄴ6, ㄴ4말ㄹ5, ㄴ5사ㄷ5, ㄹ6병ㄷ6, ㄴ6궁ㄷ6, ㄱ8차ㄱ6, ㄹ9상ㄴ6, ㄹ5말ㅁ7,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대동문의 설경/김성철

ㄱ-24088024569